



생명의숲

숲과사람들

회원이 만드는 소식지

NO. 38

2015 November

CONTENTS

생명의숲 이야기 남산 후암골 마을숲 이야기

회원 이야기 별 별 숲 교실 참여 후기

2015년 생명의숲 회원의 밤에 함께 해요



남산숲을 부탁해 캠페인 _ 건강한 남산숲을 위해 우리는 시민들과 나무를 심어 새길을 차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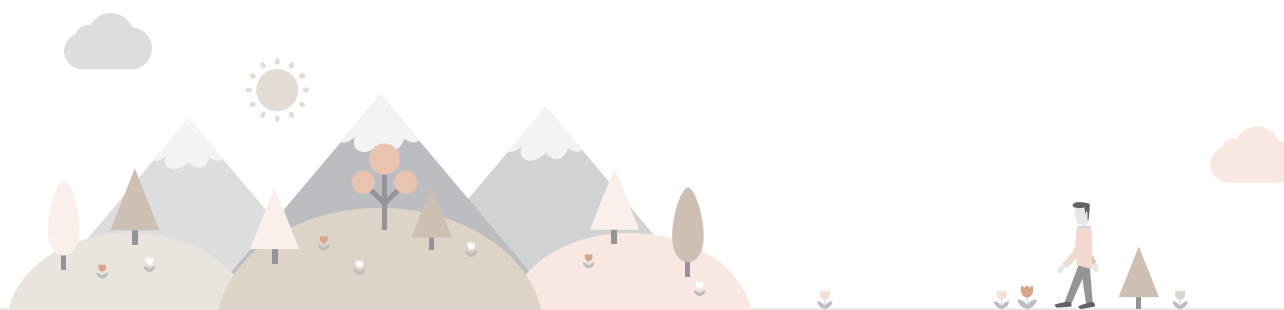


영국의 산악지역 Peak district에서 Monsal trail을 걸었습니다. 1960년대 폐선 된 철도 노선을 도보여행자와 자전거, 말까지 다닐 수 있도록 1981년에 탐방로로 만든 곳입니다.

철도 노선을 그대로 따라 만든 길은 평평해서인지 유모차를 끌고 또는 노부모님과 함께 여유 있게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숲속 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속 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명의숲과 함께 나무를 심은 경의선 숲길도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풍성한 숲으로 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며 즐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글 & 사진. 김신범 안정화 회원



진정한 시민참여는 무엇일까?

♣ “생명의숲은 사람과 숲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숲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환경단체(NGO)입니다.” 생명의숲을 소개할 때면 ‘시민과 함께’라는 의미가 대부분 들어간다. 학교숲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숲길을 가꾸고, 마을숲을 가꾸고 이런 모든 활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자체에서 온전히 주도 해왔다. 생명의숲이 다른 점은 그 활동 속에 ‘시민과 함께’라는 중요한 가치를 담아 가는 점이다. 그 가치를 살려가고자 더 많은 국민과 시간과 예산과 비효율성을 끌어안고 일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시민 참여’, ‘시민 주도’를 중요한 가치로 가져가려 노력하고 있다. 생명의숲은 ‘세계평화의숲’, ‘관악산 숲길 가꾸기’, ‘성미산 숲 가꾸기’ 등 시민참여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이런 활동을 기획, 실행하면서 진정한 ‘시민참여’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된다.

♣ ‘시민과 함께’라는 용어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와도 관계가 있다. ‘함께 하는 시민’은 억지로 동원되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 주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시민 주도는 말 그대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들이 직접 해내는 과정이다.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찾는 자원봉사가 시민주도와 만나는 지점이다. 진정한 시민참여는 행사날 참가하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 속에서 시민 주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3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 첫째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사업을 6개월 정도의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화병에 꽃을 꽂아둔 것과 같다. 시민참여는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곧 시들어버리는 성과가 아니라 활동들이 지역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 두번째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숲지킴이 양성과정’ 등 강좌를 개설하여 함께 공부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세번째는 주민들의 내발성을 중심으로 하되 초기에는 지자체의 행정력과 홍보, 최소한의 예산 마련을 위한 기업의 후원, 시민단체들의 노하우 등이 결합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도시숲에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시민주도’의 과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른 문제, 다른 정답이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이 무엇을 만들어 냈느냐는 결과 보다는 주도하는 시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진정한 ‘시민참여’라는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

글: 더불어숲팀 정용숙 국장 forestf3@naver.com

도시숲이 우리의 미래다!

- 영종도 세계평화의숲을 찾아가다

글: 정희 회원기자 whitny72@naver.com

생명의숲은 2007년부터 10년의 도시숲만들기 프로젝트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와 함께 인천공항 신도시에 세계평화의숲을 조성해 왔습니다. 민·관·기업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를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숲 관리와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세계평화의숲 사람들'이라는 시민활동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생명의숲의 대표적인 도시숲운동 사례지인 '세계평화의숲'의 이야기를 회원기자의 눈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지금, 도시 곳곳의 가로수와 숲은 저마다 화려한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가을축제를 즐기는 듯 단풍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속 자연의 모습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잠시나마 주위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준다. 길가의 가로수,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공원 숲과 같은 곳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숨막히는 자동차 매연과 답답한 공기, 어디를 둘러봐도 뻣뻣하게 들어선 회색빛의 고층 빌딩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희망과 미래를 꿈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도시숲은 바로 이런 곳이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곳,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곳이다.

도시숲이란?

도시숲은 도시인구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간 내의 숲 공원녹지를 말한다. 즉, 길거리의 가로수나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된 공원의 나무, 도심에 조성된 숲 등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 도시숲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7.95㎡에서 2013년 8.32㎡로 증가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도시숲의 기능과 역할

도시숲은 도시 경관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뜨거워진 도시의 열기를 식히고 도심의 소음을 감소시켜주며, 도시숲의 아름다운 녹색 휴식공간은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또한 도시숲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자연생태 교육과 여가문화활동 등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평화의숲 정수림 구간



2007년



2009년 시민나무심기



2015년 현재 모습

한 예로 올해 9월 세계 평균기온이 15.9도로 1880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관측되었다. 우리나라 평균기온 또한 1973년 이후 최고 4위를 기록했다. 도시를 오가는 수많은 차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하루 일과를 마친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도시 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은 3~7도 가량 낮춰주고 습도는 9~23%까지 높여주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준다. 도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플라타너스 한 그루는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세계 최초의 도시숲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유림은 가장 모범적인 산림관리 사례로 손꼽힌다.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숲 자원의 대부분을 잃었는데 3세대에 걸친 인공조림을 통해 전 국토의 3분의 1을 산림으로 가꾸는데 성공했다. 프랑크푸르트는 EU(유럽연합)의 교통, 국제교역, 금융의 중심도시로 이 곳에 조성된 시유림은 총 면적이 우리나라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1,500만 평의 거대한 숲으로 목재생산과 휴양기능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숲 속에 난 총 440km의 목재운반도로를 시민들의 산책로, 자전거 도로, 승마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거지 인근에 조성된 숲 7곳에는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테마로 만들어진 숲놀이터와 교육장이 있다. 또한 독일은 숲 속 지하수를 통해 식수를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유림을 오염시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 인식하는 면이 강하다.

세계평화의숲

이러한 도시숲의 기능과 역할을 고스란히 수행해내고 있는 인천 영종도 세계평화의숲에 가 보았다. 세계평화의숲을 찾아간 날에도 숲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삼삼오오 숲

길을 걸으며 환하게 웃는 지역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파트 단지 옆에 난 작은 오솔길로 시작되는 세계평화의숲은 인천 영종도 공항신도시(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에 지난 2007년부터 조성된 도시 생태 숲으로, 전체 면적이 총 47만 740㎡에 달한다.

영종도 공항신도시는 바다에 흙을 메워 만든 매립지 위에 만들어진 곳이다.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배후 생활권역이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시민들의 참여로 해마다 나무를 심어 세계평화의숲이 만들어졌다.

세계평화의숲에서는 연중 어린이 생태체험교육, 봄/가을 숲 축제, 주말 가족 가드닝, 도토리 묘목 심기, 사진 콘테스트, 숲 가꾸기 자원봉사활동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6,24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세계평화의숲은 영종도의 대표적인 도시숲으로 제 기능을 다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세계평화의숲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숲지킴이들의 노력이 가장 크다. 시민들은 황량한 땅에 지난 8년 동안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지속적으로 숲을 찾았고, 숲지킴이들은 시민들을 도와 숲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숲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만들어진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올해도 세계평화의숲에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다. 올해 심은 어린 묘목들이 그 곳 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울창해지기를 바란다. 🌱



▲ 세계평화의숲을 가꾸는 지역주민모임 '세계평화의숲 사람들'

남산이 품은 마을, 후암골에서 ‘함께’ 초록을 꿈꾸다.



남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후암동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구름 없이 맑은 날 후암동 초입부터 남산을 올라다보며 천천히 걸어 올라가다 보면 한 번쯤 가봤던 길처럼 정감 가는 마을길을 마주하게 된다. 그 마을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낡은 계단, 누군가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키웠을 것 같은 울방줄망 놓인 화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이들의 시끄러운 대화소리가 들리는 후암초등학교까지 다다르면 이내 남산이다. 곳곳에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후암동!

눈으로 그려지는 풍경이 인상적인 후암동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초록공간을 만들고, 가꾸는 활동을 계획하게 된 것은 2014년 연구 사업을 통해서이다. 연구 사업을 통해 처음 한번, 두 번. 그리고 몇 번 씩 후암동부터 남산을 오르내리며 발견한 것은 후암동 골목 사이사이 공간에 대한 매력과 고향집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정 많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동네라는 것이었다. 도시 내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공간이 있는 후암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마을숲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2014년 겨우내 주민센터 및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갔고, 2015년 봄 지역 행사를 통해 ‘후암동 마을가드너’ 과정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과연 동네에 꽃과 나무를 심는 일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걱정은 기우였다

“남산숲과 어울리게 작은 숲을 만들고 마을을 가꾸면 좋겠어요!”



“곳곳에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들과 잘 어울리는 숲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겨진 나무와 꽃을 잘 키우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동네에 초록 공간을 함께 꿈꾸고, 만들고, 즐겁게 가꾸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가드닝 이론교육과 실습을 하고 후암시장부터 주민센터 초입 큰길가를 따라 초록빛 식물들을 주민들과 함께 심었다. 이후에도 마을가드너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드닝 앞치마를 하고 원예용 가위와 물 조리개를 옆에 끼고 마을길을 배회하였다. 나뭇의 즐거움을 동네 곳곳에서 실천하는 정예부대! ‘후암동 마을가드너’ 활동이 이어졌다. 주민 한명 한명이 모여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는 남산 후암골! 나보다 우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웃집 사람들과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고향 같은 마을숲.

언제나 내편을 들어주시는 할머니처럼 마음이 든든해지는 마을숲.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상처럼 힐링이 되는 마을숲.

숲을 통해 마을, 사람이 조화로워지는 10년, 20년 후의 후암골 마을숲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마을가드너들과 꿈꿔본다. 🌱

글. 원미현 활동가 wmhberry@nate.com



멸종위기 식물 이야기 - 풍란(風蘭)

바람은 웬지 세월을 부르는 듯한 그리움이 매인 듯 싶다. 흔히 난초가 갖는 그윽한 향기는 매혹적인데, 특히 풍란(風蘭)은 바람에 스쳐진 애처로움이 있어 더욱 그러하다. 몸집이 작아서일까? 자신을 이기려 바위틈을 붙잡고 눈이 부신 햇살을 타넘어 바다를 고고히 바라보는 속내가 난향이 아닐까? 계란(桂蘭), 선초(仙草), 불사초(不死草), 건란(乾蘭), 현란(軒蘭) 등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풍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귀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급인 석곡과 날개하늘나리를 한려해상, 월출산, 오대산 등 3개 국립공원의 자생지에 복원했다고 한다. 지난 6월 한려해상 특정도서에 풍란 500개체의 복원을 시작으로 8월 말 월출산에 석곡 2,100개, 이달 말 오대산에 날개하늘나리 400개를 순차적으로 복원했다. 이 가운데 풍란은 60일과 100일 경과시점에서 생체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뭄과 태풍에도 전체 복원 개체의 약 87%인 435개체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개의 새로운 '촉'(난초의 포기)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생육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니 희망적이다.

풍란은 소엽풍란과 대엽풍란으로 나뉜다. 소엽풍란(학명 : *Heofinetia falcata* Hu)은 보통 자연에서는 6월경에 흰꽃이

피며 주로 밤에 향기가 많이 나는 부귀란(富貴蘭)의 원종을 말한다. 대엽풍란(학명 : *Aerides japonicum* Reichbfil)은 잎이 넓고 꽃대 하나에 여러 송이의 옅은 연녹색의 꽃이 피고 꽃의 혀(舌)에는 붉은 점이 여러 개 있다. 이름의 유래는 소엽풍란보다 잎이 넓다하여 대엽풍란이라 하고 나도풍란은 '라도'라는 섬의 이름이 아니라 '나도 풍란으로 분류해 줄 것'을 하소연하는 듯하여 지었다는 말이 있다.

현재 국내 멸종위기종 식물은 총 77종이 지정돼 있으며 국립공원 안에는 전체 지정종의 56%인 43종이 자생하고 있다. 위기종 식물에 대한 관심은 불법채취 방지와 더불어 일체의 잔재로 남은 식물용어들의 개선작업에도 눈을 돌려야 할 대목이다. 🌧

글. 임흥순 회원기자 yimhs@daum.net



© 홍순동 회원

겨울, 숲에서 놀자

한 해의 시름은 박주가리 씨앗에 달아, 후~

여름엔 민들레 흠씨가 있다면, 겨울엔 박주가리 씨앗이 있습니다. 박주가리는 5월에 진한 향을 내는 꽃이 인상적인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이며,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견됩니다. 덩굴식물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은 녹지라면 꼭 한번 박주가리 열매를 찾아보세요. 12월이 시작 될 즈음이면 열매 겹질이 말라 터지려고 할 거예요.

1.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술술 부는 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바람을 등지고 섭니다.
2. 박주가리 열매 겹질을 살며시 벌려줍니다. 그리고 힘껏 후~! 불어요.
3. 솜털이 반짝이며 나풀나풀 날아가는 모습, 민들레 흠씨와는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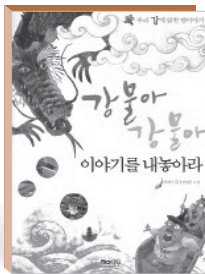
이명덕 회원기자 cokid1@naver.com



◦ 고향 만들기

김재환 지음 / 녹색 평론사 펴냄 / 2015년 4월.

도시에서의 삶을 벗어나 고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느 도시인의 여정이 기록된 책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내면은 더 황폐해져가는 도시의 생활은 고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언젠가는 돌아가고픈 현대인의 막연한 기억속의 고향이 아니라, 내가 살고있는 고향. 그 고향만들기를 실천하며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적어놓은 마음을 읽으면 고향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 강물아 강물아 이야기를 내놓아라

양태석 글 / 전병준 그림 / 해와나무 펴냄 / 2004년 4월.

두만강, 압록강, 한강, 금강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 여덟 개를 골라 그 강에 전해오는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담았다. 이들 강에 대한 역사, 지리적 특성, 주변 유적들을 소개하고, 그 강들에 얽힌 이야기가 실려 있어 아이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다.

초 록 퍼 즐

© 출제 안민자 회원기자 amj138612@naver.com

④		⑤			⑥	
①						
			②			
⑦						
						⑧
		③				

가로

- ① 도심에 보건휴양, 정서함양을 위해 조성한 숲
- ② 가을에 열매로 인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무
- ③ 주민참여로 만든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도심에 만든 공원

세로

- ④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하며 과거 정수장을 재활용한 공원
- ⑤ 경마장과 골프장이 있던 곳을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놓은 공원
- ⑥ 도심의 소음공해를 줄이고 미세먼지 흡착에 효능이 탁월한 나무
- ⑦ 1999년부터 삭막한 도심의 학교에 숲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한 운동
- ⑧ 자연을 이용하여 조성되는 공간으로 순천만에 국가00이 2014년에 문을 열었다.



정답 보내실 곳 | FORESTFL@chol.com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예쁜 손수건'을 보내드립니다.

④번의 첫 글자와 ⑤번의 첫 글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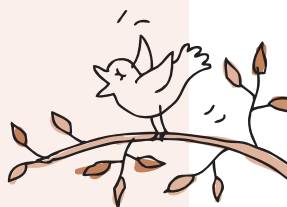
지난 37호 정답 : 조개

지난호 정답 참여자 : 김기림, 김신범, 신창기, 허근행 회원님 고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들꽃학교 노교사, 교육 희망을 보다
가을 산책과 감정교육

글. 이원구



가을이 오면서 요즘은 나의 화두인 '평등한 슬픔'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생각을 하였다. 석가가 말한바,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 미운 사람과 함께 사는 슬픔, 그리고 죽어 이별하는 슬픔을 깨닫게 하는 공부였다.

여름 무더위는 사람을 몹시 지치게 하더니 가을은 참으로 길고 아름다웠다.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마로니에, 계수나무, 붉나무뿐만 아니라, 철쭉, 목련, 싸리나무, 심지어 참나무까지 온통 나뭇잎이 꽃처럼, 타는 노을이 어여뻐다. 그런 햇살 좋은 가을날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교정으로 나왔다. 소위 '가을 감정 체험학습'이었다. 먼저 벌써 빛을 잃어 가는 한라구절초, 벌개미취, 쭉부쟁이, 감국을 보며 시들어 가면서도 깊은 가을 정취를 내는 꽃을 가르쳤다. 그리고는 열매가 당알달알 열린 꽃사과나무 열매를 가리키면서 야생사과, 곧 원조 사과나무라고 알려 주고, 더 깊숙한 곳에 보기 좋게 탐스런 열매를 햇빛에 익히고 있는 모과나무 밑으로 끌고 갔다. 시와 노래를 가르친 뒤에 옛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란 글을 복사하여 아이들과 함께 읽었다.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서른 개 이상 찾아 안톤 슈낙처럼 자유로운 수필로 쓰거나 시로 쓰라는 숙제를 내고 일주일쯤 시간을 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사춘기 아이들에게 슬픔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빠르고 잔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뒤에 아이들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열다섯 살 소녀들도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을 알고 있었다. 여자들은 참 예민한 시인들이다. 아이들의 슬픔은 참 많기도 했지만 비슷하기도 하였다. 가장 정성스럽게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정리한 2학년 서주희의 글은 나를 몹시 슬프게 하였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아빠의 머리가 어느새 흰머리로 변했을 때, 내가 동생

을 괴롭혔을 때, 좋아하는 친구와 싸웠을 때, 나뭇가지에 매달린 나뭇잎이 떨어질 때, 수업시간에 졸다가 짝꿍에게 꼬집혔을 때, 매일 부모님께서 늦게 들어오실 때, 동생이 수련회에 갔을 때, 돌아다니던 개미가 손에 잡혔을 때, 아끼던 물건이 없어졌을 때,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찔렸을 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드라마를 보다가 슬픈 장면이 나올 때, 감정 조절을 못할 때, 억울하게 혼이 날 때, 친구와 달리다가 넘어졌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침에 늦잠을 잤을 때, 앙상해진 나무를 볼 때, 꽃이 꺾여 있는 것을 볼 때,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볼 때, 밤늦게 고양이와 울부짖을 때,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볼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박스를 모으는 모습을 볼 때, 길을 가다가 팔이 다친 아저씨를 볼 때, 길을 잃은 아이들 볼 때, 지하철에서 노숙자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생활하는 시설에 힘들어하는 아주머니를 볼 때, 검을 사라고 부탁하는 아주머니를 볼 때, 너무나 배가 고프는데 먹을 게 아무 것도 없을 때, 잠을 자고 싶는데 잠을 잘 상황이 안될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을 때, 수업 시간에 단물이 덜 빠진 검을 뱉어야 할 때, 수능 시험을 못 봐서 자살하는 언니들을 볼 때, 빛을 갇지 못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원조교제 하는 아이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명절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을 때, 이런 글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초등학교 졸업앨범을 볼 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했을 때, 나의 취미나 잘하는 것을 몰랐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때, 하늘에 별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 동그란 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 사춘기가 되어서 방황 하게 되었을 때, 어릴 적 사진을 볼 때, 나 혼자 집에 남아 있을 때, 아빠의 눈물을 보았을 때... 🍂

30여 년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 온 한 교사가 텃밭을 가꾸면서 깨친 삶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숲과사람들'을 통해 나누고자 34호부터 연재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원작 도서 [들꽃학교 노교사, 교육 희망을 보다 _ 글. 이원구 _ 우리교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무심기 참여자에서 전문 자원활동가로. 함형복 회원을 만나다.

이번호엔 어느 회원님을 만날까 고심하던 차, 인천 세계평화의숲에서 이제 막 자원활동가로 나선 함형복 회원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만추의 단풍 색이 몹시도 곱던 어느 날 영종도로 함회원님을 만나러 갔다.

생명의숲, 그리고 세계평화의숲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7년 전 우리동네에 세계평화의숲이 처음 조성될 때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에 갔다가 생명의숲 소식지랑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자원활동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후원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그 때 큰 아이는 겨우 삼살 들 정도의 나이였고 작은 아이는 갓 백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기가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바닷바람을 막아 줄 해송을 심었는데 그 때 심은 나무가 7년을 지나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계속 자라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때 나무에 달았던 아이들 이름표도 없어지고 숲이 우거지면서 어떤 나무가 우리가 심은 것인지 잘 분간하기도 어렵지만 저 숲 속에 우리가 심은 나무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나다닐 때 마다 숲을 바라보곤 한답니다. 그날 나무를 심고서 세계평화의숲을 늘 마음에 두고 이 곳에서의 활동가를 꿈꾸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마음만 간절할 뿐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올해 드디어 8기 세계평화의숲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 세계평화의숲과 생명의숲, 동시에 인연을 맺고 7년째 함께 하고 있네요.

첫 인상이 자연을 닮은 것 같은 함회원님, 평소 숲과 자연을 대하는 함회원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늘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과 그리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큰 아이가 아토피도 있고 좀 아팠어요. 그래서 큰 아이 치료에 대한 방법들을 찾다 보니 자연과 나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지요. 활동을 꿈꾸게 된 것도 어떤 큰 목표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린 시절, 자연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보통 엄마의 정서에 따르기 마련인데 회원님 아이들도 숲에 관심이 많을까?

둘째 아이 자람을 하고 싶어요. 보통 아이들은 흙이 묻으면 더럽다고 싫어하는데 둘째는 아기 때부터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잘 관찰해요. 그래서 원래 집중을 잘하나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모든 것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을 대할 때 특히 집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곤충, 식물,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에도 관심을 보이고 집중하더라고요. 한번은 밖에서 메뚜기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아주 소중하게 다루면서 화분 위에 올려놓고 ‘너 여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형아 유치원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또 한번은 큰 아이랑 병아리를 한 마리 데려왔는데 큰 아이는 데려오기만 했을 뿐 관심이 없는데 둘째는 늘 책상 위에 병아리를 올려놓고 책도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아리 또한 가만히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찌나 기쁘고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의 정서를 소중하게 잘 지켜주고 싶어요.

현재 세계평화의숲 활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사실 올해 6월에 세계평화의숲 활동가 양성과정을 마치고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아요. 세계평화의숲에 나무를 심은 이후로 이 숲은 저에게 있어 늘 풀지 못한 숙제 같았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인데... 저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숲을 동경하고 있었지요. 어찌보면 세계평화의숲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숲 속에 있어야 한다는 첫 번째 숙제는 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은 숙제가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세계평화의숲을 가끔 찾는 주변인이었다면 이제는 이 숲의 주인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특히 제가 유아생태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적어도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숲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숲에 젖어들어 제대로 숲을 바라는 시각을 갖도록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어요.

세계평화의숲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유아생태교육 프로그램이요. 세계평화의숲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 측면이나 프로그램 완성도로 볼 때 유아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어요. 숲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생활을 하는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접한다 해도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숲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레야만 아이들이 커서도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숲을 가꾸는 활동들이 지속되고 순환될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유아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 대한 정취를 느끼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래요.

함희원님의 초등학교 1학년인 둘째 아이가 쓴 '봉숭아 일기'이다.

'내 봉숭아가 고개를 숙였다.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 짝꿍 봉숭아는 꽃이 폈는데... 아마도 내가 내 봉숭아를 안 좋아해서



△ 세계평화의숲에 나무심던 날 2009.4.18

그랬나보다. 내 봉숭아도 꼭 꽃을 피우게 할거다'

잠시 시들어 고개를 숙인 봉숭아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봉숭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다. 늘 자연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엄마를 닮아 그런 것 같다. 세계평화의 숲 자원활동가로 첫 발을 내딛은 함형복 회원님, 세평숲을 통해 회원님의 꿈을 키우고 두 아이의 꿈도 키우며 숲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바란다. 🌻

Interviewer 정희 회원기자

별 별 숲 교실을 하면서...

글. 김효선 회원

비가 옵니다. 이 비로 나뭇잎의 색깔이 예쁘게 물들까요? 어제 배봉산에 숲 교실을 하러 갔습니다. 해설자분께서 비가 많이 와 야 나뭇잎이 예쁘게 단풍이 진다고 하시네요. 배봉산의 숲 교실을 하면서 정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기함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혹 때죽나무를 아세요? 왜 나무의 이름에 “때”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배봉산에 올라와 보세요. 그럼 왜 그 나무가 때죽나무인지 단박에 아실 거예요. 나무의 줄기가 때가 묻은 것처럼 보여요. 손가락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때죽나무의 때는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네잎클로버가 배봉산에 있어서 선생님한테 아는 체하려고 “네잎 크로버다”라고 말했다니 갱이밤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세히 보니 다 다르게 생겼어요. 굵고 키가 큰 나무, 키가 작은 나무, 키는 큰데 뽕뽕 마른 나무, 땅바닥에 붙어 있는 나무..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많아요. 해설자님께서 아주 작은 씨앗을 보여주시면서 저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손에 있는 이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순간 가슴이 찢릿했습니다. 작은 씨앗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아이도 저 나무

의 작은 씨앗과 같은 건데... ‘우리 아이가 키가 큰 나무가 될지, 땅바닥에 붙어 있는 나무가 될지 아니면 가늘고 긴 나무가 될지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지만 그저 저기 서있는 나무처럼 소리 없이 묵묵히 지켜봐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강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순간 나무한테 부끄러웠습니다. 별 별 숲 교실을 하며 해설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무를 보면서 침묵해야 됨을,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제 아이가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만지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배려해야 함을 느끼길 희망하며 자기 속의 씨앗이 견고하고 단단한 큰 나무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



강릉 노추산(魯鄒山)

글. 정희 회원기자 whitny72@naver.com

– 금강송과 모정 돌탑이 어우러진, 가을에 더욱 아름다운 숲



노추산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旺山面)과 정선군 북면(北面) 사이의 군계(郡界)를 이루는 산이다. 신라 때의 설총과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이 산에서 학문을 닦아 중국 노(魯)나라와 추(鄒)나라의 기풍을 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뜻으로 노추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노추산은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는 3,000 여 개의 돌탑에 얹힌 차옥순 할머니의 애절한 모정(母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차옥순 할머니는 아들 2명을 사고로 잃고 남편마저 정신병에 시달리는 우환을 겪게 되었는데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돌탑 3,000개를 쌓으면 집안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1986년부터 26년 동안 노추산에서 지내면서 3,000여 개의 돌탑을 쌓았다고 한다. 계곡따라 굽이굽이 빈 틈없이 자리잡은 수천개의 돌탑을 보노라면 할머니가 긴 시간 자식을 위해 쌓아올린 기도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길고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길과 시원하게 흐르는 청량한 계곡물을 따라 돌탑에 이르는 거리는 약 1km로 가벼운 트레킹과 함께 숲의 정취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산등성이에는 참나무 군락이 자리하고 있어서 가을이면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에 놀란 다람쥐를 쉽사리 볼 수 있다.

등산로 초입 소나무 숲에는 캠핑장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기며 노추산 숲을 만끽할 수 있으며 강릉과 정선 주변 관광도 할 수 있다. 🌳

❖ 주소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6

❖ 캠핑장 노추산 힐링캠프(www.wecamper.net)

❖ 주변 관광지 정선 5일장, 아우라지 레일바이크, 안반데기, 커피박물관 등

❖ 주변 맛집 여량 옥산장 한정식, 성산 산촌식당



모정 돌탑에 오르는 노추산 등산로 초입의 소나무 숲길



노추산 모정 돌탑

● 숲누리식물교실

참나무와 함께하는 밤 곤충 관찰

9월의 어느 저녁 어둠이 내리길 기다리며 나갈 채비를 합니다. 미리 햄통과 막걸리, 홍초를 넣은 트랩을 설치한 곳으로 가봅니다. 개미류와 끝마디통통집게벌레, 주변 낙엽 위에선 보라거저리, 커다란 구멍이 난 나무줄기 속에서도 꿈틀꿈틀하는 털보왕버섯벌레의 화려한 자태, 작고 화려한 밤나방류, 각다귀류, 낮엔 잘 보이지 않던 곱둥이의 군락지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공기로 앞에 꼭 붙은 노란 무당벌레, 화려한 주홍색 라인을 가진 홍비단노린재 등 낮에 활동하는 곤충들의 밤 모습도 엿볼 수 있었지요.

● 라온숲

한 해를 마무리 하며

라온숲은 올해 성미산을 모나터링하고 숲가꾸기, 숲생태체험교실, 학교숲, 사회복지숲, 남산숲길 등의 프로그램으로 숲 현장에서 시민들과 힐링하고 트래킹하며 생태와 어울림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내년에도 라온숲은 행복하고 즐거운 숲 프로그램으로 회원님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2016년 많이 기대해주세요.

● 자원활동그룹 간담회 스케치

지난 9월, 생명의숲 자원활동그룹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생명의숲에는 1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라온숲부터 이제는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악산숲가꿈이까지 8개 모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 교육, 환경자원활동, 숲길 안내자, 그리고 회원과 소통하는 회원기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의숲 운동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만나며 호흡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입니다. 자원활동 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생명의숲 회원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 사회적으로 생태 서비스가 무료로 인식되면서 생태분야 단체들의 자생에 문제가 되어 관련 단체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기관들의 인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 분야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의숲과 함께 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은 198명(일시 자원봉사자 제외). 운동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숲과 사람을 잇고, 숲과 삶을 잇는 사람들. 생명의숲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생명의숲은 오늘의 모임을 시작으로 자원활동그룹들의 성과를 하나로 묶어 내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확대해 내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온숲, 숲누리식물교실, 회원기자단, 움툼, 남산숲가꿈이, 견고싶은서울길지킴이, 세계평화의숲사람들, 관악산숲가꿈이. 구성원 한 분한 분 생명의숲에게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198명이 모두 함께 모여 소통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생명의숲에는 3개의 회원활동모임이 있습니다.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숲해설가 자원활동모임인 '라온숲'은 생명의숲 숲교육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숲과 식물에 대한 탐구정신으로 정기 스터디와 공개강좌를 통해 회원과 만나는 '숲누리식물교실'이 있습니다. '회원기자단'은 한달에 한번씩 모여 회원소식지 숲과사람들을 기획하고 발간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원님, 회원활동모임에 함께 해보세요! ☎문의 : 02-499-6198

한 해의 마무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생명의숲과 함께 나눈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한 그루 나무가 되어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 후원회원 명단은 8월~10월까지의 입금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참여의숲팀(02-499-6198)으로 연락주세요!(^^)

※ 계좌오류로 인해 회비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일의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주세요! ♡

후원회원 명단

[illegible]

[illegible]

연남부회원

[illegible]

기업회원

(주)굿필코리아 (주)비코트립 (주)신홍이앤지 (주)에코퍼م (주)월송나우병원(김철웅) (주)웰빙아이앤씨 (주)풀무원홀딩스서울지점
LG상록재단마스터(박보강) 법무법인정목 알앤비코(RNBco) 우신건업(주)유한김빌리 일송환경복원(주)대명화학 (주)동심원조경
(주)수프로 주식회사일팩푸드 (주)유한양행 주식회사

평생회원

곽두일 권상진 김경일 김인식 김정균 김중곤 김태진 노만경 노영희 문국현 박미호 박예식 박창준 박필선 배상원
서현충 (진원스님) 신문수 우종민 윤영각 이동진 이득우 이명주 이신민 이원화 임원준 전영우 전정일 조연환 조용성 조효봉
함경식 한국공예학회 공예지도



숲을 움직이는 시민의 힘

2015년 생명의숲 회원의밤에 초대합니다.

열여덟 해를 맞이한 생명의숲은 올해에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바탕에는 회원님들의 동행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생명의숲 운동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시민활동모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고,
얼굴을 맞댄 대화의 힘으로 새해의 밑거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7년만에 돌아온 회.원.의.밤에 함께 해주세요.



모시는 이

이사장 이돈구

공동대표 마상규, 지영선, 최규복

운영위원장 김재현

사무처장 유영민



일시 및 장소

일시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18:30-20:30

장소 서울시 중구 예장동 '문학의집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프로그램

시민활동모임이 이야기하는 2015년 생명의숲 : 활동 전시와 체험 나눔
조금은 특별한 회원의 이야기

대화의 식탁 (저녁식사)

나눔 공연 : 새내기 활동가들의 뽐내기, 회원의 재능 나눔

함께 만드는 생명의숲



함께 하는 방법

생명의숲을 소개하고 싶은 지인과 함께 오셔도 좋아요.

행사 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알려주세요.

나눔공연에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 회원님께서는 회원님은 사무처로 전화주세요.



생명의숲 후원계좌

농협 1127-01-129277 (사)생명의숲



생명의숲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 숲센터 5층 02-735-3232

홈페이지 www.forest.or.kr

메일 forestfl@chol.com

블로그 forestforlife.tistory.com

페이스북 /forestfl

발행처 생명의숲국민운동 회원활동위원회 **생명의숲 회원기자단** 임홍순(단장), 노병권, 류준희, 백선길, 안민자, 우상권, 이경희, 이명덕, 이정명,
정회 **자문**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